한국문학논총 제58집(2011. 8) 293~317쪽

분단체제에 대한 2000년대 한국소설의 서사적 응전*

고 명 철**

차 례

Ⅰ. 머리말
Ⅱ. 분단체제의 '2등국민'이 살아야 할 묵시록적 현실
Ⅲ.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난민(難民), 분단체제의 약소자
Ⅳ. '존이구동(存異求同)'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서사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분단체제에 대한 21세기 문학의 서사적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20세기의 분단과 관련한 서사들이 분단문학의 범주 안에서 한국전쟁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생긴 비극과 상처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학적 성취를 일궈내었다. 무엇보다 분단이데올로기와 레드콤플렉스를 극복하여 분단으로 인한 뒤틀린 역사

* 이 글은 '2010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한국작가회의가 주관한 심포지엄(2010. 8. 27)에서 필자가 발표한 「21세기 한국소설의 쟁점」을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깁고 보태었음을 밝혀둔다.

** 광운대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를 바로 세우고자 한 서사적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의 이러한 서사들이 일국적 경계의 안에서 집중되다보니, 남과 북의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사유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의 분단 관련 서사들은 '분단체제'의 문제틀에 의해 종래의 분단문학보다 더욱 예각적이면서 심층적이고 웅숭깊은 서사를 탐구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문제를 낡고 구태의연한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분단체제를 허물기 위한 서사적 응전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2000년대의 분단체제에 대한 서사적 응전의 세 가지 양상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1)분단체제 아래 이른바 2등국민으로 살아야 할 묵시록적 현실, 2)세계자본주의 체제 아래 난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약소자로서 탈북자, 3)분단체체의 현신을 내파(內破)하기 위한 남과 북의 존이구동(存異求同)의 서사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급변한 현실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사회적 추이를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분단체제의 작동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배타적 차별의 논리와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 영구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남과 북의 분단기득권을 부정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의 구체성을 서사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분단체제, 분단문학, 사회적 상상력, 한반도, 6·15시대, 남과 북, 서사적 응전, 세계자본주의 체제

Ⅰ. 머리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정치권력은 21세기 들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두 차례의 회합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 행보를 시작하였다.[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기조 아래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사회 여러 부문에서 교류를 활발히 펼쳤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주민들은 이른바 '6·15시대'로 호명하면서 한반도의 역사는 자연스레 '6·15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이해될 정도로 남과 북의 정치사회적 관계는 실로 획기적 진전을 이뤄나갔다.[2]

---

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대에 들어 남과 북의 최고 정치권력이 두 차례 회합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만남 이후 '6·15공동선언문(2000)'이 채택된 이후 이른바 6·15시대의 서막이 열리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져 '10·4공동선언(2007)'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기조 아래 두 차례의 남과 북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적대적 대립 관계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밟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6·15시대를 맞이한 이후 남과 북은 좀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분단체제극복의 도정에 동참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백낙청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분단체제극복으로서의 통일은 원래, 남북 각각의 사회가 분단된 상태에서도 가능한 일상적인 삶의 개선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단기 목표'와, 세계체제 전체를 좀더 나은 체제로 바꾸는 '장기 목표' 사이에 놓인 '중간 목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남한사회 내에서 통일운동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진행되어온 갖가지 개혁작업—군사독재정권의 타도에서부터 지역주의 타파, 인권신장, 부패추방, 언론개혁, 환경보호, 성차별 철폐, 빈부격차 축소 등등을 위한 수많은 싸움들—이 모두 '제대로 된 통일'의 필수적 요건이다.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분단체제가 남한사회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양상이면서 더 크게는 세계체제의 모순이 분단체제를 매개로 남한사회에서 구현되는 양상이기도 함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들 개혁작업이 거둘 수 있는 성과는 극히 한정되기 마련이다. 새로운 인류 문명 건설이라는 원대한 기획과 한반도에서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건설한다는 조금 더 근접한 과제를 남한땅에 사는 개개인의 그날그날의 싸움과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세계사적 위업을 수행하는 국민이자 민족으로서 우리가 잠깨어 있는 길일 것이다."(백낙청, 「6·15선언 이후의 분단체제 극복작업」,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97쪽) 이와 함께 최근 흥미로운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를 해체하고, 지연된 6·15시대의 과제 해결을 위해 백낙청은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실천문학』, 2011년 여름호)를 설득력 있게 제안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돌이켜보건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학이야말로 '6·15시대'와 가장 적실히 교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판계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북쪽의 홍석중 소설가의 장편소설 <황진이>(2002)가 남쪽에 출판되면서 많은 독자들이 북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의 작가들은 분단 60년에 드리워진 내면의 휴전선을 걷어내는 일환으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2005년 7월 20일~25일) 이후 그 가시적 성과로 '6·15민족문학인협회'(2006년 10월 30일)를 설립하여 기관지 『통일문학』을 2호 발행하기도 하였다.[3)]

이렇듯, 남과 북의 문학 교류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분단체제의 삶을 살고 있는 작가들의 직접적 만남과 출판 교류를 통해 서로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었다. 그 험난한 도정을 통해 분단체제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 국면을 서서히 와해시킴으로써 이러한 교류의 시간이 축적되다보면, 그 시간의 힘에 의해 자연스레 분단체제가 허물어져 평화체제로 이행될 수 있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성과가 문학작품으로 충분히 육화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분단체제를 교류와 비평담론의 차원이 아닌 창작의 성과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4)]

---

3) 필자는 남북문학 교류를 위한 실무에 참여하면서 남과 북의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교류의 실질적이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절실한지 숙고하였다. 이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필자는 '6·15민족문학인협회'의 결성에 이르는 거의 모든 세부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고명철,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적 과정」, 『잠 못 이루를 리얼리스트』, 삶이보이는 창, 2010 참조.

4) 가령, 영상 쪽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2000년대에 잇달아 발표된바, <공동경비구역JSA>(2000),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 투 동막골>(2005), <아이리쉬>(2009), <의형제>(2010), <포화속으로>(2010), <꿈은 이루어진다>(2010), <적과의 동침>(2011), <풍산개>(2011) 등이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듯, 남북 관계에 대한 상투적 접근과 경직된 상상력을 넘어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천안함 침몰과 영평도 포격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단체제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0년대의 한국소설은 분단체제에 대해 서사적 대응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 윤곽을 살펴보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Ⅱ. 분단체제의 '2등국민'이 살아야 할 묵시록적 현실

분단체제를 다룬 2000년대의 한국소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그동안 금기의 영역으로 구획된 채 감히 인식의 지평으로 구체화할 수 없던 북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20세기의 이른바 분단문학[5]의 차원에서는 냉엄한 분단이데올로기가 작동되는 현실에서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사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정작 작가들이 다루고 싶어도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접할 수 있는 정보마저 대한민국의 실정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보니,[6] 남과 북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지금, 이곳의 현실과 밀착한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 분단의 현실에 대한 문학적 탐구는 1980년대까지 한국문학의 주요한 몫이었다(김승환·신범순 편, 『분단문학의 비평』, 청하, 1987).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작가들에게 분단 현실은 주목받지 못했다. 다원성·개성을 전면에 내세운 개별화된 담론의 급성장은 우리 현실의 사회·역사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억눌린 무의식적 욕망을 표출하는 데 주력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근원적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분단 상황에 대한 천착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인 양 소홀히 취급되기도 했다."(고인환,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그들」, 『공감과 곤혹 사이』, 실천문학사, 2007, 76쪽)

6) 분단의 현실은 한국문학에 창조적 응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문학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폭압 속에서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문학사에서 분단의 극복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국문학의 치열한 저항과 응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명철, 「분단체제 혹은 국가보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는 작품을 쓰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6·15시대'를 맞이하면서 광범위하고 활발한 남북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의 계기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정치사회체제를 살아온 한반도의 주민들이 그 엄혹한 체제의 경계를 넘어 직접 부딪치며 이뤄지는 삶의 구체성에 대한 상상력을 작가들이 마음껏 펼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응준의 장편소설 <국가의 사생활>(민음사, 2009)과 권리의 장편소설 <왼손잡이 미스터리>(문학수첩, 2007)에서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한데 뒤엉키는 삶을 통해 분단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은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흡수통일"[7] 이후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가상 역사소설이며,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리>는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실재와 가상현실의 착종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흡수통일 이후의 현실, 즉 '통일 대한민국'과 분단체제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다. 두 작품 모두 북한 주민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내고자 애를 쓴다. 이응준과 권리는 한국전쟁을 미체험한 젊은 세대이고, '6·15시대' 이후 진전된 남북 교류의 문화적 혜택을 듬뿍 받은 세대이고, 무엇보다 냉전시대의 정치사회적 이념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이에 자유롭지 못한 냉전의 아비튀스와 단호히 결별한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못 흥미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이응준과 권리는 대한민국 일방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 지배로 귀결

법을 넘는 한국문학」, 『뼈꽃이 피다』, 케포이북스, 2009 참조.

7)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1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되는 분단체제의 동요가 낳은 혹은 배태될 수 있는 현실을 예각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있다.

> 통일 대한민국은 이북 사람들에게 뼈아픈 상실 그 자체였다. 따뜻한 남쪽 나라의 동포가 미리 건설해 놓은 자본주의에 편입만 하면 언젠가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남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을 게으르고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라고 모욕했다. 이북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지금은 유령이 되어 버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루어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북 사람들과 이남 사람들은 서로가 달라도 이토록 처절하고 이 갈리게 다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8]

이응준은 북한의 최정예군들이 '통일 대한민국' 이후 조폭으로 전락한 채 이북 출신의 여성만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남쪽 출신의 정재계 지배권력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데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북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지금은 유령이 되어 버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통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 혈안이 된 채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북 사람들이 버젓이 극우파가 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해치는 웃지 못할 사건들"[9]을 벌인다. 이북 사람들은 실감한다. "통일 대한민국은 내면적으로 여전히 분단 상태였고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보다 더 지독한 지역감정 하나가 추가되"[10]고 있는 가운데 이북 사람들은 '통일 대한민국'에서 '2등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이 대한

8) 이응준, 위의 책, 100쪽.
9) 이응준, 같은 책, 99쪽.
10) 이응준, 같은 책, 7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민국에 의한 흡수통일 이후의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점에 따라 '반북주의적 태도'를 이데올로기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소설을 통해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남북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11]는 점에서 그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가상 역사소설에서 미리 보는 현실이 지금, 이곳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권리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자들은 "여기서 내는 탈북자고 이등인이지, 한국인이 아니야. 처음에는 외국인 대하듯 호기심 갖다가 나중에는 밥그릇 빼앗긴다고 욕하니까."[12]와 같은 말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구별되는 '2등국민'임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다.

> "앞에서는 인권, 인권 해도 정작 실질적인 도움은 안 주는 정부가 문제야. 보수파와 미국은 탈북자는 난민으로 둔갑시켜 탈북자 인권을 정치적으로 팔아먹고, 진보파는 북한 체제 붕괴될까 봐 인권 문제는 아예 외면해 버리고 있잖니? 당리당략만 하다가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뒤통수나 맞질 않나. 내는 김정일이 독재 정권, 수령 절대주의 싫어서 내 발로 나온 사람이지만, 사회 돌아가는 모양 보면 내 생각이 옳았나 삭갈려. 저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정직한 직업이나 얻게 해줬으면 좋겠어."
>
> "요샌 기획 탈북 막자고 정착금도 분할 지급한다는데, 기케 하면 가게 하나 차릴 수 있겠어? 다 탈북자 수를 줄이려는 속셈이지."
>
> "헬싱키 그룹이 또 한 건 하는 건가? 인권 문제로 압박해서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리려구."
>
> "옳지. 이게 다 미제 놈들 때문이야. 탈북자 다 받아 주면 중국이 국경 단속 세게 할 거구, 결국 탈북자들 더는 못 나오게 될 거야. 경제봉쇄

11) 오창은, 「분단 디아스포라와 민족문학」,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실천문학사, 2011, 234-235쪽.
12)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리>, 문학수첩, 2007, 11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조치해서 고난의 행군하게 만들더니, 인차 북한에 인권 공세로 밀어붙인 다음, 조선 반도를 이라크로 만들 셈인 게지. 미국 가면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해서, 출세까지 한다지만 난 절대 미국 안 가, 흥!"[13]

여기서 단적으로 읽을 수 있듯, 무엇보다 무서운 현실은, 대한민국의 보수파와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보파 모두 탈북자를 각자의 이해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 탈북자가 대한민국에서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대해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작가의 지적은 온당하다. 때문에 권리는 탈북자의 시선을 빌려 "안개 속에 살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나라"[14]가 곧 대한민국이며, 탈북자가 이러한 안개의 나라에서 '2등국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묵시록적 현실을 매우 차분하면서도 냉정히 드러낸다.

이응준과 권리의 작품을 통해 성찰할 수 있는 것은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우(杞憂)가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서사를 통해 헤아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분단체제를 동요시키는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북한 주민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슬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Ⅲ.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난민(難民), 분단체제의 약소자

매우 초보적 논의일지 모르지만, '분단시대'가 아닌 '분단체제'라고 언급할 때는 분단에 대한 문제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두 개의 국민국가로 나뉜 영토 분할의 관점에 초점

13) 권리, 위의 책, 111-112쪽.
14) 권리, 같은 책, 148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둔 게 아니라 이들 국가를 아우른 세계자본주의 체체를 염두에 둔, 그 하위체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논의하는 게 적실하다.[15] 따라서 2000년대의 주요 문제작인 황석영의 장편소설 <바리데기>(창비, 2007)와 정도상의 연작소설 <찔레꽃>(창비, 2008)에 쏟아진 문학 안팎의 관심은, 이제 드디어 이들 작품을 통해 분단체제가 비평담론의 논의틀에서 벗어나 창작의 영역을 포괄하여 그 담론의 적실성을 보증받게 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16]

<바리데기>와 <찔레꽃>은 모두 탈북자를 다루고 있되, 그들이 서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단의 문제를 한반도의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좀더 거시적 지평에서 분단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이른바 분단서사에 낯익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소설은 새롭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은 그들의 소설에서 탈북자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국가의 상상력에 갇혀 있는 소수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약소자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탈북자에 대한, 그리고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를 추구하려는 문학적 인식과 실천의 소중한 자산이다.

---

15) 백낙청은 민족문학론을 개진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민족사의 문제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문제틀을 정립한다.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창작과비평사, 1994)에서 본격으로 논의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흔들리는 분단체제』(창작과비평사, 1998)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보이는 '분단체제'는, 종래 '냉전체제'뿐만 아니라 남북한 각각의 이질적 정치체제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분단체제'는 어디까지나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하위체제로서 남북한 민중을 억압하는 남북한의 반민중적 기득권층과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치의 역학구도 아래 분단시대의 질곡을 살고 있는 민족사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틀이다.

16) 이하 <바리데기>와 <찔레꽃>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고명철의 「2000년대의 한국문학과 리얼리즘, 저항과 변혁의 상상력으로」, 『뼈꽃이 피다』, 케포이북스, 2009, 199-20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탈북자에 대한 이모저모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억압을 못견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다분히 반공주의적 관점 일변도의 이념형 탈북으로 규정내려 왔다. 하지만, 황석영과 정도상의 소설에서는 이 같은 이념형 탈북이 아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의 경제적 빈곤이 가속화되었고,[17]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은 인민의 삶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성찰이 놓여 있다. 북한에 대한 황석영과 정도상의 이러한 서사는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배제적 시선으로 보는 것을 넘어 서서,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세 속에서 약소자[18]로 있는 북한의 인민을 향한 인류애적 시선을 보여

17) 북한은 1995년 여름부터 엄습한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식량기근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은 1996년 신년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등의 공동사설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에서 인문들에게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호소한다. 이처럼 "식량난은 북조선에 한국전쟁 이래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 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 있지만 상당한 아사자가 나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앙으로부터 식량은 물론 생활필수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북조선 계획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앙공급체계가 거의 마비되는 사태가 조성되었다. 체제이완현상이 광범하게 만연하며, 당 및 행정조직, 사회단체들이 상부 지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편, 『북조선 연구』, 창비, 2010, 321쪽)

18) 흔히들 탈북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노약자, 불량청소년,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등을 소수자(minority)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좀 더 이 용어를 엄밀히 이해할 경우 "소수자는 수적 소수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강자와 주류 기득권세력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소수자라는 용어를 약소자(弱小者)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대출판문화원, 2010, 15쪽) 그런 의미에서 "약소자는 1)유력자의 권력을 드러내면서도, 2)유력자의 '관용'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의 밖에서 체계의 부정성을 증언한다. 이를 통해 3)윤리적 반성 과정에서 주체성을 획득하며, 그 윤리성과 주체성에 입각해 4)새로운 연대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상징조작'에 저항한다."(오창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 『실천문학』, 2006. 가을호, 326쪽) 이후 이 글에서는 탈북자를 이 같은 의미를 내포한 '약소자'로 지칭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준다.

> 신랑은 공작처럼 멋지고 신부를 꽃보다 더 예뻐라
> 신이여 두 사람을 받으소서 축복하소서
> (중략)
> 우리가 무슬림들이 모여사는 동네에 도착하자 집앞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알리의 형제자매가 다 모였고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에다 동네 사람들이며 이슬람 모스크의 신도들까지 백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알리네 부모님은 옆집에까지 양해를 구하여 집 아랫마당에는 몰려온 동네 사람들을 위한 차일 천막을 쳐놓았고 옥상에 친척 친지 들의 자리를 마련했다.
> (중략)
> 할머니의 이야기 중에 장승이와 바리공주의 약속이 생각났다. 길값, 나무값, 물값으로 석삼년 아홉 해를 아들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어야 하는 세월.
> 나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늘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살아 있는 한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19]

황석영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문제적 인물 '바리데기'는 중국을 거쳐 영국으로 이주하는 동안 아랍인을 만나 결혼을 하여 행복을 꿈꾸게 되는데, 이러한 구도는 황석영에 의해 일국적 차원의 민족 문제(즉, 민족국가 하나되기-통일국가)로만 분단체제를 허무는 것도 아니고, 남한 혹은 미국 중심의 서구에 의해서만 허물어지는 게 아닌, 현재 지구상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차별적 대우를 감내하고 있는 북한과 아랍 민족의 소통·연대를 모색함으로써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0]

---

19)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220-223쪽.

20) 물론 이에 대해 부정적 평가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바리와 알리가 결혼을 하여 살고, 바리의 주변 약소자들과 만나면서 "비극적 현실의 장면들을 불러내는 바리의 서사가 종종 위태로워지는 까닭은 절박한 구체성이나 인과 없이 이어 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또한 정도상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주요 인물 '충심'은 탈북자에 대한 편협한 반공주의적 인식을 바로 잡게 하고, 탈북자들이 겪는 온갖 고충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통해 분단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정녕 무엇을 어떻게 숙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본적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 연습 한번 합시다."

충심이모가 와서 영수의 손에 크레용을 쥐여주었다. 박선교사는 비디오카메라로 영수의 얼굴과 옷차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조선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김정일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자유를 정말 원해요. 조선은 지옥이고 많이 굶었어요. 밥도 많이 먹고 싶고, 자유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박선교사가 부르는 대로 충심이모의 손짓에 따라 영수는 편지를 썼다. 충심이모는 얼굴을 찡그렸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충심이모가 물었다. 아무도 충심이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도 얼른 글씨를 쓰고 싶었다.

"좋았어. 그런데 옷이 너무 깨끗해. 좀 더러운 거 없어요?"

박선교사 말하자 만복삼촌의 논초리가 사납게 변하더니 혀를 끌끌 찼다. 순덕이모가 얼른 크레용으로 옷을 더럽게 만들더니 조금 찢었다.

"좋았어. 이제 갑시다!"

영수는 충심이모의 도움 없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내려갔다. 이마에 땀이 뻘뻘 났다. 박선교사는 환한 얼굴로 촬영에 열중했다.[21]

여진 장면들의 과잉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리가 지상에서 초월하여 화해와 구원의 여신으로 격상해버린다는"(서영인, 「천국보다 낯선, 이 고요한 지옥」, 『타인을 읽는 슬픔』, 실천문학사, 2008, 318쪽) 것은 예각적 비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바리의 초월적 화해와 구원이 갖는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바리가 탈북하여 온갖 시련 끝에 도달한 영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약소자들과 논리적으로 연대하는 게 아닌, 아픈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논리를 넘어선 초월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21)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183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여기서 정도상이 심각히 제기하는 문제는 북한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탈북을 기획하여 그것을 상업화하는, 즉 탈북브로커들의 반인권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꼬집는다.[22] 탈북브로커들에게 인권의 문제의식은 애초 없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탈북을 기획하여 벌어들이는 돈뿐이다. 그래서 정도상은 우리들에게 묻는다. 혹 우리는 북의 인권 문제를 북한에 대한 남한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속류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정도상은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황석영과 정도상에 의해 2000년대의 한국소설은 분단의 문제를 보다 넓고 깊게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석영에 의해 분단체제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지구적 차

22) 북한 이탈을 조직적으로 도모하는 탈북브로커들의 존재는 공공연한 사실을 넘어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인천남부경찰서는 법원 현관에서 폭행을 벌인 탈북자들을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북한을 탈출한 모자(母子)와 탈출을 도운 50대 탈북브로커 대금으로 추정되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벌이던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시비가 일어나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탈북 브로커대금 소송 관련 북한이탈주민 간 폭행 일어」, 『인천신문』, 2011. 5. 27), 『시사저널』(1113호, 2011년 2월 22일 발행)에서는 「탈북브로커, 200여명 활동」이란 내용으로 탈북브로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탈북브로커에 의해 기획된 탈북이 '북의 인권탄압'이라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면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정치사회적 긴장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탈북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방콕에서 그는 20대 후반의 남자 전도사를 만났다. (중략) 전도사는 우리에게 비싼 의수를 선물하며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은근히 요구했다. (중략) //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했다가 잘린 것처럼 해요.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지 빨리 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 (중략) 하지만 막상 인터뷰에 들어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수를 벗어 뭉툭한 오른손을 보여주는 능청을 부렸다. // "나는 북조선 인민으로 태어나, 남조선 국민으로 살다가, 세계 시민으로 죽을 것이다." // 외신들은 "와우! 지저스! 울랄라! 아라라!" 등의 감탄사를 내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중략) // 우리는 그제서야 그 전도사가 탈북자를 인질 삼아, 미국 정부의 지원을 타 먹으려고 용을 쓰는 사이비 전도업자란 사실을 깨달았다."(권리, <왼손잡이 미스터리>, 151-153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원과 연동되어 있으며, 정도상에 의해 그것은 남과 북의 섣부른 통일(統一)을 지양한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생공존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통이(統二/通二)의 상상력을 제공받는 것이다.[23]

여기서 또 다른 문제작 강영숙의 장편소설 <리나>(랜덤하우스코리아, 2006)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리데기'와 '충심'이란 인물은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알몸으로 던져진 약소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바, <리나>의 주인공 '리나' 역시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국경을 옮겨다니는 비국민(非國民)으로서 '난민(難民)'이다.

> 오늘의 이야기. 열여덟 살에 국경을 넘어 당신들의 나라에 들어와 스물네 살이 된 여자 이야기.
>
> 커다란 지구의 아래쪽엔 가난한 여자들 천지. 가난한 여자들은 어디에나 있다구요? 말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중략)
>
> 국경을 넘자마자 브로커가 날 팔았어. 다 찌그러진 자동차 껍데기조차 살 수 없는 돈에 팔았지. 날 산 남자는 도망가면 곤란하다며 매일매일 데리고 잤어. 난 한밤중엔 팬티만 입고 도망쳤지. 그리고 수더분하게 생긴 여자를 만났어. 이 여자가 날 또 팔았지. 얼마나 받았을까. 난 자동차로 열 시간을 달려 도시로 팔려갔어. 도시에서 뭘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 너희 같은 것들 열 명을 모아서 팔아봤자 제대로 된 여자 하나 사기도 어려워. 우리를 늘 감시하던 남자가 말하곤 했지. 비리비리해진 나는 또 팔려갔어.
>
> 온통 논과 밭뿐인 깡시골에 내렸어. 얼굴이 작고 마른 남자가 보라색

23) "남북통일은 반드시 통이(通異, 統二—인용자)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이'다. 통이는 타자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겨우 가닿을 수 있는 문화적 과정이다. 본디 하나였으니 무조건 합치자는 구호의 범람은 통일에 심각한 장애만 형성할 뿐이다. 통이의 과정이 없는 통일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일은 통이의 과정, 그것이 문화적 과정일 때 비로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문화적 고향'이 될 것이다."(정도상, 「통이(通異, 統二)를 위한 기나긴 그리움의 길 위에서」, 『내일을 여는 작가』, 2004년 여름호, 33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도라지꽃을 주며 날 맞았지. 농사일을 도울 여자가 필요했대. 남자는 때리지도 않았고 밥을 굶기지도 않았어. 낮에는 농사를 짓느라, 밤에는 남자에게 시달리느라 길을 걸으면서도 졸았어. 그리고 애를 낳았지. 애는 세 살 때부터 지껄이고 다녔어.[24]

'리나'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난민으로서 이곳저곳 떠도는 것 자체가 낭만과는 아예 동떨어진 끔찍한 지옥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인신매매, 살인, 강간, 시체유기, 성매매 등 '리나'가 몸소 겪은 일들을 듣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25]로 치부할 정도로 반인간적 폭력에 '리나'는 노출돼 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리나'가 겪은 언어절(言語絶)의 온갖 폭력은 제3세계의 비국민으로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무한 탐욕에 기인한다. 제3세계의 난민, 그것도 '리나'와 같은 여성은 무한히 팽창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온갖 성산업 구조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리나'가 지나친 곳은 예외가 아니다. 비참한 현실이지만, '리나'가 난민으로서 떠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가 매춘의 상품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리나'는 어디로인지 떠나지만, 그의 떠남이 희망을 상실한, 잇따른 세계의 절망과 환멸을 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기에 그 떠남을 지켜보는 독자는 분단체제가 빚어낸 이 끔찍한 세계의 고통에 진저리를 칠 터이다.[26] 왜냐하면 '리나'의 이러한 난민으로서의 여정에 지금보다 더욱 섬찟한 폭력이 기다릴지 모르는데,

---

24)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93-94쪽.

25) 강영숙, 위의 책, 117쪽.

26) 오창은은 "강영숙은 탈북 소녀 리나를 알기 위해서 이 장편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리나 안에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리나>를 창작했다. 이는 분단문제를 전유해,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의미화할 수 있다."(오창은, 「분단 디아스포라와 민족문학」,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239쪽)라고 하는데, 무엇을 염두에 둔 논의인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리나>에서 가볍게 넘겨볼 수 없는 것은 '리나'의 주체적 삶을 찾는 여정의 발단은 분단체제가 빚어낸 자신의 조국을 떠나 비국민으로서 난민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더욱 두려운 일은 '리나'에게 이제 웬만한 폭력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점차 세계의 숱한 폭력에 내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리데기', '충심', '리나'와 같은 탈북자들이 겪는 분단체제의 고통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악무한의 현실을 뚜렷이 환기시켜준다.

Ⅳ. '존이구동(存異求同)'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서사

분단체제를 허무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서로 다른 정치사회 체제를 살고 있는 한반도의 주민들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부정할 리도 없으며, 특정 정치사회적 헤게모니에 의해 강요된 삶을 살 수도 없는 일이다. 분단체제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어느 일방의 입장에 의해 흡수통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바,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레 무리수를 두지 않고 남과 북의 주민들이 치명적 상처와 고통을 동반하지 않은 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적(修辭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존이구동(存異求同)'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와 실천이 한반도의 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삶', '조화를 이루되 동일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주민들이 분단체제를 일상에서 허물 수 있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삶의 지혜와 실천이 아닌가, 하고 곰곰 숙고해보곤 한다.

전성태의 단편 <목란식당>(≪늑대≫, 창비, 2009)과 손홍규의 단편 <도플갱어>(≪봉섭이 가라사대≫, 창비, 2008), 그리고 최용탁의 단편 <바하무트라는 이름의 물고기>(≪미궁의 눈≫, 삶이보이는 창, 2007)는 '존이구동'과 '화이부동'의 소설적 전언을 들려준다. 이들 세 단편은 지금, 이곳의 일상에서 분단체제를 어떻게 내파(內破)해야 하는 것인가를 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찰한다.

> "흥, 내가 모를 줄 알아. 냉면요리사는 안 왔어!"
> 교인들은 기도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는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박사장과 삼촌은 어리둥절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사장이 놀라서 뛰어나왔다. 우리는 여사장이 무슨 변명을 해주리라 싶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 (중략)
> "오, 주여! 이게 저들의 방식입니다."
> (중략)
> 그러자 목사가 외쳤다.
> "사실을 호도하는 자나 거짓을 두둔하는 자나 다 민족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바로 저런 사악한 사탄의 마음 때문입니다."
> "허허, 여긴 그저 밥 먹는 식당입니다."
> 삼촌이 두 손을 들어 다독이는 몸짓을 했다.
> "식당이니까 내 하는 말이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경한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모두 나갑시다."
> 교인들이 목사를 따라 우르르 몰려나갔다.
> 박사장이 몰려나가는 교인들을 향해 한발짝 나서며 소리쳤다.
> "여보시오! 그것도 말이라고 나불댑니까? 냉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왜 사탄이 돼야 한단 말이오?"[27]

몽골의 소문난 북한음식점 '목란식당'은 북한의 공훈 냉면요리사를 직접 초빙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손님들을 끈다. 한국의 기독교 관광객들은 공훈 냉면요리사의 냉면 맛을 보기 위해 '목란식당'을 찾았는데, 그들이 먹은 냉면이 공훈 요리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마치 사탄의 음식을 먹은 것인 양 식당 주인을 비난한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냉면을 먹은 듯 만족했다가 별안간 태도를 돌변한다. 그 순간 기독교인들은 해묵은 냉전과 분단

27) 전성태, <목란식당>, ≪늑대≫, 창비, 2009, 30-3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논리를 종교의 교리와 착종시키는 가운데 '북한=사탄/남한=하느님'이란 어처구니 없는 대립적 이분법의 논리에 휩싸인다.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깊숙이 분단의 차별적 논리가 똬리를 틀고 있음을 전성태는 직시한다. 냉면 한 그릇을 먹는 일에까지 분단체제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촌철살인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이 장면을 목도한 인물의 입을 통해 "목란은 그냥 식당인데……."[28]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다. 남과 북의 정치사회적 이념 대립을 무화시키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모여 각자의 식성대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곧 '목란식당'의 본연의 역할이듯, 분단체제를 허무는 일은 이처럼 대립과 분단의 논리를 앞세우는 게 아닌, 차이와 조화의 논리를 일상에 착근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 서로 다른 곳에 엄연히 존재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관념이 아닌 삶의 실재로서 인정해야 한다. 손홍규의 <도플갱어>가 흥미롭게 읽히는 것은 '북위 37° 동경 126°'에 존재하는 남쪽의 준영과 '북위 39° 동경 125°'에 존재하는 북한의 준영이 각기 서로 다른 정치사회 체제의 일상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각자가 부딪치는 관계 속에서 현존을 휩싸는 파토스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이다.[29]

작가의 의도적 작위성을 논외로 한다면, 남과 북 준영이 사이에는 "통과할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생기고 그 벽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은 전혀 다른 세계"[30]라는 점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호주관적으

---

28) 전성태, 위의 책, 32쪽.

29) 가령, 다음과 같은 내적 고민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는 흙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만약 저 강물에 휩쓸려 남포갑문을 지나 망망한 서해로 흘러간다면, 누군가 나를 닮은 이가 평양에 있어, 내가 살지 못한 삶을 대신해줄 수 있을까. 희숙을 닮은 누군가가 이곳에 살고 있어, 희숙의 삶을 대신해줄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다. 사회정치적 생명도 육체적 생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세상에 자신과 희숙을 닮은 아니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신과 희숙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을 것이다."(손홍규, <도플갱어>, ≪봉섭이 가라사대≫, 창비, 2008, 19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 존중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남과 북의 타자성을 적대적 대립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위상학(位相學)의 가치를 인정하는 전향적 관계로 정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정립된 관계는 당장 분단체제에 심한 파열을 가해오지는 않되, 더디지만 서서히 분단체제의 안쪽에서 균열이 시작돼 어느 순간 가뭇없이 스러질 것이라고 필자는 기대한다.

> 우리는 이후 영국과 아일랜드를 거쳐 미국으로 갔다. 백악관 앞에서 사흘간 단식농성을 한 다음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했다. 유엔 본부 앞 광장에는 현지 한인회 등이 주최하는 남북동시 가입 축하 공연과 남북 분리가입을 반대하는 일부 동포들의 시위가 함께 벌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인공기와 태극기가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절규하듯 '조국은 하나다!'라고 울부짖으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지난 한 달간의 문화선전대 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게양되는 두 개의 국기는 내 젊음과 열정을 마감하는 조기(弔旗)였다.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조금씩 닳아져가던 생애의 어떤 끈이 툭, 끊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동료들에게 간단한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뉴욕에 살고 있는 이모의 집을 찾아갔다.[31]

최용탁의 <바하무트라는 이름의 물고기>에서 한국의 좌파적 문화선전대 활동을 하던 인물이 UN본부 앞에서 UN에 동시 가입한 남과 북의 국기가 동시에 게양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흘리는 눈물에는 분단체제를 새롭게 환기하는 진실이 배어있다.[32] 분단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의 배타적 관계를 넘어선 교호적 관계로 진전해야 할 과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30) 손홍규, 위의 책, 180쪽.

31) 최용탁, <바하무트라는 이름의 물고기>, ≪미궁의 눈≫, 삶이보이는 창, 2007, 128쪽.

3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7일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유지하는 책임 있는 주권 국가의 구성원이 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V.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분단체제에 대한 유의미한 서사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 윤곽을 그려보는 데 있다. 20세기의 분단과 관련한 서사들이 분단문학의 범주 안에서 한국전쟁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생긴 비극과 상처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학적 성취를 일궈내었다. 무엇보다 분단이데올로기와 레드콤플렉스를 극복하여 분단으로 인한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한 서사적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의 이러한 서사들이 일국적 경계의 안에서 집중되다보니, 남과 북의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사유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2000년대의 분단 관련 서사들은 '분단체제'의 문제틀에 의해 종래의 분단 문제보다 더욱 예각적이면서 심층적이고 웅숭깊은 서사를 탐구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문제를 낡고 구태의연한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분단체제를 허물기 위한 서사적 응전은 지속되어야 하되, 급변한 현실 속에서 예전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가 차단돼 있지 않은 것을 적극 활용하여 남과 북의 정치사회적 추이를 예의주시함은 물론,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분단체제의 작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엇보다 분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배타적 차별의 논리와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 영구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남과 북의 분단기득권을 부정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의 구체성을 서사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체제를 허무는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자연스레 모색하고 꿈꾸는 다양한 서사들이 한국소설의 대지를 종요롭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탈북 브로커대금 소송 관련 북한이탈주민 간 폭행 일어」, 『인천신문』, 2011. 5. 27.

「탈북브로커, 200여명 활동」, 『시사저널』, 1113호, 2011. 2. 22.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고명철,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적 과정」, 『잠 못 이루는 리얼리스트』, 삶이보이는 창, 2010, 350-367쪽.

_____, 「2000년대의 한국문학과 리얼리즘, 저항과 변혁의 상상력으로」, 『뼈꽃이 피다』, 케포이북스, 2009, 199-201쪽.

_____, 「분단체제 혹은 국가보안법을 넘는 한국문학」, 『뼈꽃이 피다』, 케포이북스, 2009, 151-170쪽.

고인환,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그들」, 『공감과 곤혹 사이』, 실천문학사, 2007, 75-100쪽.

권 리, <왼손잡이 미스터리>, 문학수첩, 2007.

김승환·신범순 편, 『분단문학의 비평』, 청하, 1987.

백낙청,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실천문학』, 2011년 여름호, 360-384쪽.

_____, 「6·15선언 이후의 분단체제 극복작업」,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91-97쪽.

_____,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

_____,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편, 『북조선 연구』, 창비, 2010.

서영인, 「천국보다 낯선, 이 고요한 지옥」, 『타인을 읽는 슬픔』, 실천문학사, 2008, 310-323쪽.

손홍규, <도플갱어>, ≪봉섭이 가라사대≫, 창비, 200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오창은, 「분단 디아스포라와 민족문학」,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실천문학사, 2011, 215-245쪽.
_____,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 『실천문학』, 2006년 가을호, 322-330쪽.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전성태, <목란식당>, ≪늑대≫, 창비, 2009.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대출판문화원, 2010.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_____, 「통이(通異, 統二)를 위한 기나긴 그리움의 길 위에서」, 『내일을 여는 작가』, 2004년 여름호, 328-343쪽.
최용탁, <바하무트라는 이름의 물고기>, ≪미궁의 눈≫, 삶이보이는 창, 2007.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Narrative Challenge of Korean Novel in the 2000s for the Divided Systems

Ko, Myeong-Cheol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am narrative deal of the 21st century literature about the divided systems. Narrations related with division of 21st century in the category of division of literature made literary achievements for solving the problem of division by having interest in tragedy and injury resulted from the cause and process of Korean war. Most of all, by overcoming the division of ideology and red complex we could not neglect narrative effort to correct rightly twisted history resulted from the division. However, as these narrations of the 21st century focused in inner of a country boundary, we had no choice but to neglect the limit not to think generally in bigger outline.

As examining it so far, narrations related with division of 21st century by the problem shape of 'divided systems' have new task to inspect more acute, deep and profound narration than those of traditional division of literature. It is hard to approach with old and obsolete view. Narrative challenge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destroy the divided systems. However, not only does political and social progres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bserve closely but also operation of divided systems closely related with a system of world capitalism should examine closely.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Most of all, concreteness of new social imagination should be made narration to exceed and deny division acquired rights of South and North Korea to fix permanent division by using division politically in the logic of exclusive discrimination and hostile conflict relation.

Key Words : divided systems, division literature, social imagination, 6·15times, South and North Korea, narrative challenge, a system of world capitalism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